

# 저소득층 노후주택 새단장

### 임실군, 주거환경 개선·빈집정비·지붕 교체 등 연말까지 사업 가속도

임실군이 농촌지역과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월 군에 따르면 올해 초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주택개량 90동과 빈집 정비 88동, 지붕개량 80동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30동 총 288동에 용자 180억과 보조금 3억4천만 원이 지원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면적 150㎡ 이하로 신축과 증축, 리모델링 시 용자를 지원하고 융자금은 최대 2억원까지이며, 금리는 2%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으로 조정 가능하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 등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은 250만원, 일반지붕은 100만원의 철거 비용을 각각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은 누수되고 노후·불량한 주택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개량비용 150만원을 지원, 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 소유주택이나 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400만원 이내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 주거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위?수탁협약 체결,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주택 중 누수 및 노후?불량 정도가 심한 가정에 긴급수리를 해주고 있다. 집수리가 급한 주택을 우선 선정해 수선유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군은 수급자주택 수선유지사업으로 77가구에 4억4천만원을 투입하는 한편 주거복지 전문기관인 LH공사에서 자재승인 및 공사감독 품질확보는 물론 정밀시공 등 저소득층의 주택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심 민 군수는 지난 2일 LH담당자가 함께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과 애로사항, 수혜자의 만족도를 직접 청취하는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심민 군수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소득 주민들도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불량주택개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최근 순창을 일품공원 옆 분수대 주변에서는 촌시장이 열려 다양한 물건을 팔고 또 그 자체가 문화가 되는 새로운 아시장의 모습을 선보였다.

## 새로운 시골 야시장 선보여

### 순창군 월1회 일품공원 옆 분수대 일원서 진행

'강아지도 팔고 집에서 준비해 온 쿠키, 전 등 수제 음식도 판다. 현 옷가치며 신발 등 중고품도 나와 있고, 집에서 키운 혼자 먹기 좋고 대형 판매점에 내다 팔기는 어렵지만 농산물도 있다. 뽕내고 싶은 공예품도 나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린다.'

최근 순창을 일품공원 옆 분수대 주변에서는 '촌박자현, 시시콜콜, 순창 골목장'이란 주제로 촌시장이 열려 다양한 물건을 팔고 또 그 자체가 문화가 되는 새로운 아시장의 모습을 선보였다.

순창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촌시장발전기회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귀농인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농민, 자영업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촌시장의 특징은 기존에 생산된 품질이 좋고 우수한 제품들을 상인들이 파는게 아니라 귀농인과 지역 주민들이 일에서 키운 줄 남는 농산물이나 자신에게 필요 없지만 타인에게 필요할 수 있는 책, 신발 등 중고품, 자신이 직접 만든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공동체 공간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날 촌 시장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공연과 함께 진행돼 그 자체가 문화가 되는 한바탕 어울림 한마당 잔치가 됐다.

다음 촌시장은 9월 첫째 주 일품공원에서 열린다. 순창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은 참여가 가능하나 기성품 위주 판매 상인들의 참여는 제한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군 돌발해충 방제 총력

#### 10일~30일 집중 기간 설정

임실군은 최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의 산란기가 도래함에 따라 홍보 지도를 강화하고 나섰다.

농업기술센터는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차 집중 방제 기간을 설정하고 효율적 방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산란과 파수원을 오가며 광범위하게 활동하며 나무를 흡즙해 영양불균형과 감염병을 일으키고 배설물로 그을음병 등을 유발한다.

특히 열매가 맺히는 새가지에 상처를 내고 알을 낳기 때문에 파수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달 관찰포 조사를 통해 약충의 첫 우화를 확인했으며 현재는 대부분 농경지에 약충과 성충이 혼재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산란을 막기 위한 방제를 시작해 10월 상순까지 15일간격으로 2~3회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가급적 마을 및 구역단위로 동시 집중 방제 하는 것이 개체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방제약제 지원, 농가 교육 등 갈색날개매미충의 밀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부동산 거래, 종이 사라진다

#### 남원시, 전자계약제도 시행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이달부터 종이 계약서·인감도장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에서 계약을 작성하고,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고 거래 당사자의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처리되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신고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권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30% 절감할 수 있으며, k국민, 우리, 신한, 부산, 경남, 대구은행 등에서 전자계약 당사자에게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2% 추가 인하하여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혜택도 크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 사업체 매출액 증가세 뚜렷

### 5년전 대비 70.1% 올라... 관내 기업유치·식품산업 특화 등 성공 요인

순창군 관내 사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5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분석 결과 순창군의 관내 사업체에서 발생한 총매출액은 1조 4,962억원으로 2010년 8,795억원 대비 무려 70.1%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평균 매출액 증가율 23.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장세다. 특히 도내 전체 영업이익이 11.4%가 감소한 상황에서 순창군 사업체의 영업이익은 1,645억원으로 2010년 535억원 대비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출액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분류별로는 건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분야 매출이 고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관내 사업체 매출액 증가의 원인을 농공단지 조성 등을 통한 활발한 기업체 유치와 지역 내 식품산업의 특화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군은 현재까지 총 5개 농공단지를 조성해 분양율이 80%를 넘어섰다. 29개 업체가 활발히 운영 중이며 식품관련 업체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순창군은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분석 결과 순창군의 관내 사업체에서 발생한 총매출액은 1조 4,962억원으로 2010년 8,795억원 대비 무려 70.1%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뚜렷한 산업으로는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등으로 특히 장류 등 식료품 제조업은 전 산업 매출액의 22%, 영업이익의 65.7%를 점유해 지역 총생산에 끌어 올리는 효자산업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순창군 상용군

로자 증가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매출액의 증가에 비해 운수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의 영업수지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업체간 경쟁완화 및 영업비용의 증가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 성장을 위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피서철 생활오수 줄이기 등 특별관리 돌입

남원시가 피서객들에게 지리산 뱀사골 계곡의 맑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오수 줄이기 등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여름철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해 식품접객업소, 펜션 등에서 많은 물 사용으로 깨끗한 계곡수 오염 우려를 막기 위해 피서객들이 사용하는 생활오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인 뱀사골지역에는 달궁처리장을 비롯해 산내면 소재지까지 6곳의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이 있다.

그러나 해마다 시설용량 490㎡/일인 처리장에 600㎡/일까지 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양의 하수가 유입되어 처리시설을 보강하고 처리효율을 높이는 등 시설관리에 완벽을 기해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피서철을 맞아 서비스업

소가 늘어나면서 배출하는 생활 오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남원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 펜션, 공동위생업소 등 170여개소를 대상으로 생활오수 줄이기 협조를 요청하는 홍보와 계도에 나섰다.

또한 7월 말부터 8월까지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하수처리시설 집중관리와 함께 업소에서 배출하는 생활오수 외에도 "오염되지 않은 계곡수나 허드렛물이 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중점 계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쓰레기는 분리배출해 하수에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합성세제류 사용을 자제해 뱀사골을 찾는 피서객들이 맑고 깨끗한 자연속에서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주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l'Ser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